

이해조 소설과 『금고기관』의 관련 양상

— 「월하가인」을 중심으로

김 종 욱*

[초 록]

1911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해조의 「월하가인」은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은 신소설이다. 그동안 이 작품은 1905년에 있었던 한국인들의 멕시코 이민을 다룬 최초의 작품으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이해조가 멕시코 이민을 소재로 삼은 것은 사회적 관심을 활용해 대중들의 관심을 끌려는 목적이었다. 이 작품이 연재되던 무렵에 《매일신보》에서는 20세기 최초의 혁명으로 평가받는 멕시코 내전이 자주 기사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해조가 이처럼 당대의 사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하가인」에서는 주인공의 이민과 귀국 과정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갑오농민전쟁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식민화의 위기에 처해 있던 대한제국의 정치현실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식민권력과 타협하는 모습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주제어: 이해조, 금고기관, 월하가인, 멕시코혁명, 멕시코이민
Yi Hae-jo, *Jingugiguan*, *Wolhagain*, Mexican civil war, Mexican immigration of Koreans

을 엿볼 수 있다.

『월하가인』에서 흥미로운 것은 서사의 진행과정이 중국의 백화소설 집인 『금고기관』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해조는 초기작에서 전체 서사의 골격을 『금고기관』에서 그대로 차용했지만, 1910년을 거치면서 역사적 사건들을 서사의 전면에 배치하여 『금고기관』의 영향력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당대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들을 다룸으로써 독자들의 호기심에 영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해조의 서사전략은 《매일신보》의 대중화 기획과 깊이 결부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식민질서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1. 들어가는 말

『월하가인』은 1911년 1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11년 12월 20일 보급서관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연재 당시에는 ‘하관생(遐觀生)’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가 단행본을 발간하면서 김용준을 저작검발행인(혹은 편집검발행인)으로 올린 까닭에 창작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의문을 가진 이들도 있었지만, 소설 「화의 혈」 서문에서 이해조가 「박정화」, 「화세계」, 「월하가인」을 자신의 저술로 언급하면서 저자 문제는 일단락된 듯하다.

『월하가인』은 초판 발행 이후 거의 매해 판을 달리할 만큼 독자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았다.¹⁾ 1916년 박문서관으로 출판사를 옮겨 4판을 발행한 뒤로 1921년 8판을 발행한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8판에서는 띄어쓰기와 행갈이가 완전히 무시되면서 110~120면 내외

1) 최성윤에 따르면 『월하가인』이 출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13년에 여인의 수난사에 서사가 집중되어 있는 「화원호접」이 현영선의 이름으로 대창서원에서 출판된 적도 있다고 한다. 최성윤(2014), 『이해조 신소설을 저본으로 한 모방·번안 텍스트의 양상 연구』, 《현대소설연구》 57, pp. 460-462.

를 유지하던 전체 면수가 86면으로 줄어든다. 6판과 7판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서 이러한 퇴행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긴 어렵지만, 1910년대 말에 신소설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제작비용을 줄이기 위한 출판사의 자구책이었으리라 짐작된다. 화려한 채색으로 장식되어 있던 표지가 단순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초판	재판	3판	4판	5판	...	8판
						
1911.12.20. (명치 44)	1913.01.30. (대정 2)	1914.02.05. (대정 3)	1916.01.25. (대정 5)	1917.03.06. (대정 6)	...	1921.12.25. (대정 10)
보급서관	제3판 판권지에서 확인함	보급서관	박문서관	박문서관	...	박문서관
저작겸 발행자 김용준		편집겸 발행자 김용준	편집겸 발행자 김용준	편집겸 발행자 김용준	...	저작겸 발행자 김용준
124면		118면	118면	109면	...	86면
정가 25전		정가 25전	정가 30전	정가 30전	...	정가 25전

그런데, 소설이 한창 인기를 끌고 있던 1910년대에 발간된 『월하가인』의 표지를 살펴보면, 마당가의 고목나무라든가 집 옆의 붉은 벽돌집 등 배경이 조금 달라졌을 뿐 양복을 입은 남자가 팔을 벌린 채 한복을 입은 여인과 머리를 짚은 어린 아이가 있는 기와집 마루로 다가서는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가족 간의 헤어짐과 만남이라는 가정소설적 맥락에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자 했던 것이다. ‘애정소설(哀情小說)’이라는 명칭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표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청복(淸服)을 입은 사람이 대문 바깥에서 기웃거리는 모습이다. 소설 속에서 중국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표지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월하가인』이 주목받았던 것도 표지에 등장했던 중국인과 관련되어 있다. 초창기 연구가 대체로 가족 간의 이별과 재회라는 가정소설의 맥락에서 이 작품에 접근했던 것과 달리, 최원식이²⁾ 멕시코 이민사와 관련시킨 이래 여러 연구자들이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이다.³⁾ 그 결과 대한제국 말기에 정치적인 변동과 경제적인 몰락에 의해 발생한 해외 이주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재평가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방법은 『월하가인』이 멕시코 이민을 재현하려는 목적에서 창작되었다고 전제한다. 이해조가 소설의 재료를 옛사람의 지나간 자취, 가탁의 형질 없는 것, 현금에 있는 사람의 실지사적으로 구분한 뒤 『월하가인』은 현금에 있는 사람의 실지사적을 그린 것이라고 말한 까닭이다. 이 무렵 이해조가 ‘기자’라고 자칭했던 것도 이와 관련된다. “현금에 있는 사람의 실지사적”을 “허언낭설은 한 구절도 기혹치 아니하고 정녕히 있는 일동일성을 일호차착 없이 편집”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때 허구적인 이야기의 창조자라는 관념은 투입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해조가 멕시코 이민자들의 삶을 소설적 제재로 삼았을 때, 그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뒤 총독부 기관지로 전략한 매일신보사에 취직한 이해조는 1910년 10월부터 쉬지 않고 소설을 연재하고 있었기에 소설 창작을 위해 취재를 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이해조는 왜 국권 침탈 이후에 멕시코 이민을 형상화하려고 했을까? 본고의 문제의식은 여

2) 최원식(1986), 『신소설과 노동이민』,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pp. 262-285.
 3) 표언복(1998), 「미국 유이민(流移民)의 발생과 신소설」, 《어문연구》 30, pp. 381-396.
 김형규(2011), 「일제 식민화 초기 서사에 나타난 해외이주 형상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46, pp. 101-134.
 강진구(2014), 「한국소설에 나타난 墨西哥(묵서가) 연구」, 《어문론집》 60, pp. 211-237.
 4) 이해조(1911), 「화의 혈」, 《매일신보》, 1911.04.06.

기에서 출발한다.

2. ‘실지사적’의 허구적 재구성

역사적으로 볼 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제국기의 한반도에서도 예외적일 수 없었다. 만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하와이를 위시한 미주 지역까지 광범위한 국외 이주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들이 한반도를 떠난 이유는 다양했다. 제국주의의 침탈에 맞서 국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망명을 떠나기도 했고, 사회적 혼란의 와중에서 생존을 위해 경제적 이민을 떠나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멕시코 이민은 국가간의 외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속될 수 없었다. 1905년 4월 일천여 명의 한국인들이 멕시코 유카탄 지역으로 이주한 뒤 한동안 후속 이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멕시코 이민선⁵⁾이 인천항을 떠난 지 석 달여가 지난, 그리고 이민자들이 멕시코에 도착한 지 두 달여가 지난 1905년 7월 말에 멕시코 이민자들의 곤경이 국내에 알려진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신태규·황용성·안정수·방화중 등이 멕시코 이민자의 비참한 생활을 알리는 중

5) 멕시코 에네켄 농장주들의 위임을 받은 이민브로커 마이어스(John Meyers)는 일본의 대륙식민회사 한국지부의 책임자였던 오바 간이치(大庭寬一)와 함께 이민노동자를 모집한 뒤 2월 출항할 계획이었으나 멕시코와의 정식 외교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블랑시 프랑스 공사를 통하여 은밀하게 여권을 발급받는다. 1905년 4월 이민선이 인천 제물포를 떠날 무렵 대한제국의 외부에서는 하와이와 멕시코 이민을 금지([잡보]電禁移民, 《황성신문》, 1905.04.03)하지만, 이미 조선을 떠난 이민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한편 조선을 떠난 이민자들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영국 상선으로 갈아탄 다음 한 달여의 여행 끝에 멕시코 살리나 크루즈 항에 도착한 후 기차와 배를 이용하여 5월 15일 프로그레소 항구에 도착했다.

국인 허웨이(河惠)의 편지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중국계 신문 《문흥일보(文興日報)》를 보내오자, 당시 상동청년회 서기를 맡고 있던 정순만(鄭淳萬)은 《황성신문》에 기고문을 쓰면서 허웨이의 편지를 「묵국(墨國) 이주민의 참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것이다.⁶⁾

하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외교권 박탈(1905.11.17.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대한제국 정부의 능동적인 외교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고종황제가 8월 1일 조령⁷⁾을 통해 이민자들을 조속히 송환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명하지만, 8월 말 현지조사를 위해 파견한 의무협판 윤치호는 여비 부족으로 되돌아오고 만 것이다. 그렇지만 미주지역 한인사회와 연계되어 있던 상동청년회는 현지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 특히 박장현은 1906년 1월 미국을 거쳐 멕시코시티를 방문하고 현지 조사를 벌여 불법적인 노동이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켰던 것이다.⁸⁾

이해조의 「월하가인」은 멕시코 이민을 떠난 몰락 양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충주 목계에 살던 심진사(학서)는 동학당으로 참여하라는 ‘부랑잡배’들의 강요를 피해 아내와 함께 외가인 이강동 덕이 있는 경기도 양주의 평구역말로 도망을 친다. 하지만 외가는 이미 서울로 이사를 간 뒤여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 겨우 몸을 의탁하게 된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이강동마저 세상을 떠나자 장례를 치르느라 생계에 곤란을 겪던 심

6) 정순만(1905), 「國民이 盡爲奴隸어늘 誰能救乎아」, 《황성신문》, 1905.7.29.

7) 『고종실록』 46권, 고종 42년 8월 1일[양력].
(http://sillok.history.go.kr/id/wza_14208001_001)

8) 박장현은 멕시코 현지 조사 중 농장주에게 숙전 100폐소를 지불하고 풀러나 멕시코 시티에 거주하고 있던 염우규와 안규선을 만났다. 하지만 에네켄 농장이 밀집해 있던 “메리다까지는 길이 험하고 인심이 사나워 현지 조사가 어렵고 그곳에 갈 경우 돌아올 자금이 부족하며 더 이상 조사할 만한 내용이 없으며 정부 간의 교섭이 아니면 교포들을 구출할 길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내로 되돌아온다(「移民慘況」, 《대한매일신보》, 1906.4.19.). 박장현의 보고서는 《황성신문》(1906.4.18)과 《대한매일신보》(1906.4.12, 4.19~4.21)에 실려 있다.

진사는 우연히 동문수학하던 정윤조를 만나 멕시코에 가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 결국 심진사는 가까운 시일에 돈을 벌어 귀국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인천항에서 윤선을 탄다.

한인 이민자들이 도착했을 당시 멕시코는 포르피리오 디아즈(Porfirio Diaz)가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멕시코는 삼백 년 이상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1810년에 독립을 선언했는데, 1877년부터 권력을 장악한 디아즈는 경제적 근대화를 내세워 백인들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국유지와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땅, 그리고 원주민 공유지를 약탈하여 대토지소유제로 전환시킨다.⁹⁾ 이렇게 몇몇 농장주에게 집중된 라티퐁디움 체제는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활용되었는데, 멕시코 한인 이민자들이 도착한 유카탄 지역에서는 선인장의 일종인 에네켄(Henequen) 재배로 일원화된다. 에네켄이 선박 밧줄과 바인더 끈, 낚시줄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면서 19세기 내내 호황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멕시코 한인 이민자들은 언어소통이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에네켄 잎을 잘라야 했다.

윤조의 있는 농막을 찾아가니 토인이 채찍을 들고 수십 명 고용하는 사람을 양의 떼 모양으로 몰아오는데 개개이 의복이 남루하여 더러운 살을 감추지 못하고 얼굴에 줄줄이 때가 흘러 눈만 겨우 반 짝반짝 하는데 심진사를 보고 피차간 인사는 본래 없는 자들이나 동시 동양 사람이라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무엇이라 말을 하려 한즉 토인이 소리를 버럭 지르며 발길질을 하니 다시 꿀꺽 말을 못하고 지나더라.(62)¹⁰⁾

9) 에두아르노 갈레아노(1980), 박광순 역, 『수탈된 대지: 라틴 아메리카 500년사』, 범우사, p. 204.

10) 이해조(1911), 『월하가인』, 보급서관. 이하 작품을 인용할 때에는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고, 인용 말미에 면수를 밝히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한다.

멕시코 이민자들의 노동계약은 현대적인 의미의 임금노동이 일반화되기 이전의 계약노동 관행을 따른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1915년 1월 카란자(Venustiano Carranza) 대통령에 의해 농장법이 폐지되기까지 계약노동은 멕시코에서 적법한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멕시코 이민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노예’와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계약노동은 일정한 기간의 계약이 끝나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노예노동과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멕시코 이민자들은 4년 간의 계약이 끝난 1909년 5월 12일에 자유인의 신분을 되찾게 된다.

『월하가인』이 발표된 것은 멕시코 이민자들이 계약노동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뒤였다.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진 것은 1909년 4월 초였다.¹¹⁾ 뒤이어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대한인국민회에서 파견한 황사용과 방화중의 지도를 받아 메리다지방회를 결성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진다. 이해조가 멕시코 이민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표명한 것은 이 무렵이다. 『모란병』에서 멕시코 이민을 “못 먹고 헐벗고 삼시로 매를 맞으며 노동을 한다”¹²⁾라고 언급하면서, 아들이 유학을 떠난 사실을 모르는 부모를 속여 재산을 빼앗는 과정에서 중요한 모티프로

11) 『年前 我同胞 千餘人 이 南米 墨西哥 地方에 渡往 訃야』, 《황성신문》, 1909.04.02. 이후 《황성신문》에서는 『在墨同胞의 活動』(1909.04.27), 『在墨同胞 現況의 續聞』(1909.06.11~12) 등의 논설을 발표하였고, 《대한매일신보》에서도 1909년 6월 15일에 『기념어저귀』라는 기사를 실었다.

12) “일본 와 수소문을 하온즉, 수복이가 여간 가지고 왔던 여비를 다 없애고 목서가 사람에게 몸을 자매하여 건너갔는데, 못 먹고 헐벗고 삼시로 매를 맞으며 노동을 한다더니 근일에는 생사존몰을 알지 못한다 하오니, 사실이 불가불 목서가로 들어갈 터이온데, 종제가 다행히 천신만고 중 살아있으면 제 몸을 속량하여야 하겠삽고, 만일 풍설과 같이 불행한 일이 있으면 골육을 그곳에다가 버려둘 수 없사오니, 매가육장을 하신대도 운구를 불가불 하겠사오니, 돈 일천 환만 이 사람 편에 구쳐 하여 보내 주옵소서. 이 사람이 신실무의하오니 조금도 염려 말으시옵소서.” 이해조(1911), 『모란병』, 박문서관, p. 92.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모란병』이 발표된 시기가 멕시코 이민자들이 계약노동에서 풀려나던 때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제국신문》이 1909년 2월 28일까지만 남아 있어서¹³⁾ 멕시코 이민을 언급한 부분이 언제 발표되었는지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단행본의 분량을 고려하면 멕시코 이민자들이 계약노동에서 풀려나던 무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멕시코 이민자들의 후일담을 이해조가 알고 있었다면, 『월화가인』을 통해서 멕시코 노동이민의 참상을 재현하는 것 역시 시의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해조가 멕시코 이민을 다룬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국권 침탈 이후 이해조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한 매일신보사 기자로서 소설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해조가 소설 『화세계』를 연재하던 무렵, 《매일신보》 제1면에는 ‘세계잡조(世界雜俎)’라는 이름으로 국제정세가 실려 있었는데, 당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지역은 ‘20세기 최초의 혁명’이 발생한 멕시코였다. 36년 동안 군림해 왔던 디아즈가 1910년 선거에 또다시 출마하자 이에 맞서 마데로(Francisco Indalécio Madero) 등이 선거 거부를 선언하면서 멕시코 내전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런데, 멕시코는 일본 정부의 관심 지역이기도 했다. 메이지 개국 이래 최초의 평등조약으로 평가받는 멕시코와의 수호통상조약(1888년) 체결 이후 많은 일본인들이 이민을 떠난 까닭에 멕시코 정세에 깊은 관심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10년 9월 1일 멕시코 수도에서 ‘일묵박람회(日墨博覽會)’¹⁴⁾를 개최하고 9월 16일 멕시코 독립 백주년 기념식

13) 이해조의 『모란병』은 《제국신문》에 1909년 2월 13일부터 연재되기 시작하였으나, 2월 28일까지만 확인되었고, 언제 연재가 끝났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배정상 (2015), 『이해조 문학 연구』, 소명출판, 2015, p. 187.

14) “日墨博覽會는 來九月一日에 墨西哥首府에서 開호터인 故로 日本은 全國重要各都市와 協議호야 大阪商業會議所長太田氏以下를 委員으로 定호야 拾二日出發케호 다더라” 『日墨博覽會』, 《황성신문》, 1910.07.02.

에는 특명전권대사를 파견¹⁵⁾할 정도였던 것이다. 따라서 1910년 내내 멕시코 정세는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다.¹⁶⁾ 따라서 이해조가 이미 완전한 자유인이 된 멕시코 이민자를 새삼스럽게 형상화한 것은 멕시코 혁명에 대한 당대의 관심에 부응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이해조가 멕시코 이민을 객관적으로 재현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소설의 첫 대목에서 심진사는 “갑오년 동학란을 당하여 부랑잡류들이 아무쪼록 심진사를 끌어내어 앞장을 세우고 도당을 소집하려고 입도하기를 여러 번 권”(2)하는 것을 피해 서울로 올라왔다가 우여곡절 끝에 멕시코까지 흘러간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심진사가 서울에 올라올 무렵 장씨부인은 첫 아이를 수태한 지 오륙 삭 정도였고, 이강동의 장례를 치르고 난 직후에 몸을 풀었다. 그런데 아내의 해산구완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심진사는 거리를 헤매다가 고향 친구인 윤조를 만나 멕시코로 갔으니, 심진사가 동학란을 피해 서울에 올라왔다가 멕시코로 떠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몇 달이 채 안된다. 심진사가 멕시코로 떠났을 때 아들 창손은 “세상에 나온 지가 인제 겨우 백일”(16)밖에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였던 것이다. 따라서 『월하가인』의 첫대목에서 1894년의 갑오농민전쟁과 1905년의 멕시코 이민을 연결시킨 것은 단순한 착오라고 하기에는 서사적 개연성을 너무 벗어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5) “멕시코의 독립한 지 백년된 기념식에 참여기로 파송되는 특명전권대사 님과 □원 룩군 중좌 평화와 □□ 중좌 던숨이가 본월 십일일에 향항환을 타고 발정하기로 결명하엿다더라” 『특과대사 발정』, 《대한매일신보》, 1910.07.05.

16) 1910년 6월말부터 7월 초까지 멕시코 대통령 선거 관련 기사는 《황성신문》(6.12, 6.17, 6.26, 7.2)과 《대한매일신보》(6.19, 6.26, 6.28)에 실려 있으며, 1910년 11월에는 멕시코 내전 관련 기사가 《매일신보》(11.15, 10.16, 10.17, 10.19, 10.25, 10.26)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이해조는 심진사가 “동양에서 건너간 사람을 전신에 유혈이 낭자하도록 채찍질을 하여 가며 뼈가 빠지도록 노동을 시키며 사람은 차마 견디기 어려운 악한 음식을 주어 만일 괴로이 여기고 게으른 빛이 있으며 무지한 밭과 우악한 주먹으로 차고 때리”(53~54)는 가혹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면서 멕시코를 “아직도 문명진화(文明進化)가 못다 되어서 인류를 우마와 같이 천하게 대우하는 악풍이 그저 있는”(53) 야만적인 국가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이민자들에게 태형을 가하고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토인”은 멕시코 토착민, 곧 인디오들이 아니라 “옥색물을 풀어 들인 눈”(55)을 가진 백인들이다. 인디오들이나 한국인 이민자들은 모두 디아즈 정권과 결탁한 백인 농장주들에 의해 강제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월하가인』에서 멕시코의 백인들은 ‘토인’이자 ‘야만인’으로 묘사된다. 당시의 멕시코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민자들의 참상을 토착민과의 갈등으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으로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담론적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진사가 멕시코를 탈출한 뒤 미국 화성돈에서 수학을 하다가 미국 공사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귀국하는 과정 또한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심진사는 멕시코를 탈출한 뒤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주미공사로 와 있던 민판서의 도움으로 서기생으로 추천된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1905년 11월 일본과의 을사보호조약으로 인하여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미국 공사관 또한 폐쇄당했다. 만약 소설에서 언급된 대로 심진사가 미국에 건너가던 “그때는 전한국 주미공사가 있었을 때”라고 하더라도 민판서가 귀국한 뒤에 ‘외부대신’이 되고 심진사 또한 민판서를 도와 참서관을 거쳐 “국장으로 협판까지 승차”(473)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처럼 『월하가인』에서 심진사의 이민과 귀국 과정은 역사적 사실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토마체프스키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야기 자체의

개연성과 무관하게 삽입되는 이러한 자유모티프들 속에서 식민화의 위기에 맞섰던 갑오농민전쟁을 부랑잡배들의 행위로 비하하고 제국주의 질서 속에 편입되고 있던 대한제국의 정치상황을 정상적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조가 『월하가인』에서 시의성을 상실한 멕시코 이민을 새삼스럽게 소설적 제재로 삼은 것은 역사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려는 목적과는 무관해 보인다. 당대에 세계사적인 관심지역이었던 멕시코를 소설적 배경으로 삼아 독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상업적인 목적을 내비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식민담론에 편승하여 식민질서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3. 중국인에 대한 긍정적 묘사와 그 의미

『월하가인』에서 심진사가 멕시코로 이민을 떠난 동안 서울에 남아있던 장씨부인은 여러 차례 위기와 맞닥뜨린다. 남편이 떠난 후 여러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방물장수 또성어미가 중매로 한 몫 챙기려는 욕심으로 접근한다. 그녀는 처음에 온갖 친절을 베풀어 환심을 산 뒤에 값비싼 노리개를 훔쳐 장씨부인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선을 보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선을 보는 자리에서 장씨부인의 사연을 알게 된 장시어가 오히려 또성어미를 고발하고 서로 의남매를 맺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된다. 그런데 장시어가 벽동집과 결혼한 뒤 고향 원주로 내려가면서 장씨부인에게 새로운 위기가 찾아온다. 벽동집이 장씨부인을 시기하여 패물을 훔친다고 모함하여 그녀를 쫓아냈던 것이다. 결국 장씨부인은 원주를 떠나 서울로 가던 중에 우연히도 아버지 장판서에게 은혜를 입은 중국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남편 심진사와도 만나게 된다.

이러한 가족 재회의 서사는 이해조의 다른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월하가인』은 본질적으로는 헤어진 부부의 재회 과정을 그리는 가정소

설의 플롯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월하가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서사 전개 과정에서 중국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중국인 왕대춘은 “산동사람으로 조선에 건너와 장사를 하다가 중병으로 자본을 다 없애고 노동생활을 하”(56)기 위해 멕시코로 건너갔다. 그는 멕시코에서 심진사를 만나자, 미국에 살고 있던 외사촌을 동원하여 미국 정부의 신분 보장을 얻어내고 자신이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몸값을 대신 치루는 등 많은 도움을 준다. 왕대춘의 도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장씨부인이 벽동집의 모함을 받아 서울로 쫓겨가는 과정에서도 계속된다. 심진사와 헤어져 영국 런던으로 갔던 왕대춘이 “중형의 자본으로 각종 물품을 무역하여 가지고 장사치로 조선으로 다시 나왔”(107)다가 장씨부인을 만나 선대의 은혜를 갚았던 것이다.

이처럼 중국인 왕대춘은 심진사와 장씨부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원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또한 심진사와 장씨부인이 재회하도록 주선함으로써 해피엔딩으로 이끌어간다. 이 시기 신소설이 대체로 중국인을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왕대춘의 형상은 매우 이채롭다. 그래서 배정상은 “이해조 소설이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담론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청인 조력자보다는 일본인 조력자를 등장시키는 편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이해조가 굳이 청인 조력자를 등장시킨 것은 적어도 「월하가인」이 《매일신보》 또는 식민주체의 담론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연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⁷⁾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월하가인」에서는 다른 신소설들과 달리 왜 중국인 왕대춘이 구원자 역할을 담당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작가는 소설의 마지막 대목에서 왕대춘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7) 배정상(2015), p. 281.

(심) 저번에는 미처 묻지를 못하였소마는 공의 덕 소경력에 무슨 곡절이 있기로 우리 내외의 일과 방불하여 감구지회가 생긴다 하셨나요?

(왕) 그는 졸사간에 말씀으로 할 수 없삽고 상해 소설대가가 내 집 일을 희한히 여겨 『동정추월』이라는 신소설을 편집 발행하는 것이 있으니 그 책을 구하여 보시면 자세히 아시리이다.(124)

여기에서 왕대춘은 심진사 일가의 이야기가 자기 가문의 소경력과 방불하여 감구지회가 생긴다고 말하거니와, 이에 따르면 왕대춘 일가의 이야기를 그린 『동정추월』과 심진사의 이야기를 다룬 『월하가인』은 유사한 작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텍스트에서 다른 텍스트를 지시하는 방법은 이미 『홍도화』에서 사용된 바 있다. 주인공 태희가 영평 홍생원 집으로 시집을 왔다가 청상과부가 되어 누명을 쓰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녀에게 다시 삶에 대한 희망을 되살려 준 것이 《제국신문》에 실린 논설이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월하가인』에서 언급한 『동정추월』 역시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동정추월』이라는 중국 신소설 작품은 눈에 띠지 않는다. 대신 1912년 청송당에서 민준호가 번안한 신소설 『동정추월』이 있긴 하지만, 일본인 오카모토 유키코(岡本雪子)가 아버지와 남편의 원수를 갚는다는 내용이어서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¹⁸⁾

그런데, 소설 속에 등장한 『동정추월』과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것은 『금고기관』¹⁹⁾의 아홉 번째 이야기인 「전운한우고동정홍(轉運漢遇巧洞

18) 이영아는 이 대목을 두고 “『동정추월』이라는 신소설의 홍보를 곁들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지만, 1911년에 연재되고 발간된 작품이 1년 뒤에 출간된 작품을 홍보한다는 해석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영아(2007), 『1910년대 매일신보 연재소설의 대중성 획득과정 연구』, 《현대문학연구》 23, p. 50, 각주 20.

19) 『금고기관(今古奇觀)』은 중국 명대의 승정 10년(1637년) 전후하여 포옹노인(抱瓮老人)에 의해 편찬되었다고 전해지는 의화본을 말한다. 본디 송대의 화본(話本)은 구연을 위한 간략한 이야기였지만, 출판되면서 많은 인기를 얻게 되자 화본을 모방

庭紅)』이다. 이 작품에는 김유후와 문약허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특히 거부가 된다는 점술가의 말을 믿고 허랑하게 지내던 문약허가 친구의 도움으로 무역선을 타고 해외에 나갔다가 동정홍 덕분에 큰 행운을 만나는 두 번째 이야기가 주목된다. 이야기의 배경이 명나라 때여서 『월하가인』과 직접 비교하기는 쉽지 어렵지만, 두 이야기는王大춘의 말따나 “초년에 괴로움을 겪다가 말년에 원만한 복을 누리”(123)게 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월하가인』의 주인공 심진사는 난리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다가 일확천금의 꿈을 꾸면서 멕시코로 떠난다. 이 과정에서 문약허가 큰 부자가 되리라는 점술사의 예언을 믿었던 것처럼 심진사 역시 멕시코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에는 허황하게 듣고 그대 생의도 아니 하다가 윤조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10~11)여 함께 멕시코로 떠나기로 약속한다. 하지만 멕시코에 도착하자마자 환상은 깨어진다. “이름이 노동이지 별것이 아니라 기계를 돌려주기나 하고 고동을 틀어 놓기나 하는데 그것도 시간을 작정하여 하루 몇 시간 동안쯤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제 자유로 공부를 하려던 공부도 하고 장사를 하려면 장사도 하며”(10) 지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개발회사의 풍설”(11)에 지나지 않았고, 심진사는 친구 정윤조의 “풍치는 말”(53)에 속은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멕시코에서 패가망신한 줄로만 알았던 심진사는 예기치 않은 행운을 만난다. 문약허가 우연히 거북의 등껍질을 얻어 페르시아 상인에

한 ‘의화본(擬話本)’들이 양산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의화본은 출판과 결합한 읽을거리였기 때문에 이야기 구성이나 인물 묘사에 있어서 큰 발전을 보였다. 그래서 여러 권의 의화본들이 책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삼언(『諭世明言』, 『警世通言』, 『醒世恒言』)과 이박(『初刻拍案驚奇』와 『二刻拍案驚奇』)이다. 이렇듯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삼언’과 ‘이박’에 실렸던 작품 중에서 좋은 작품만을 골라 놓은 것이 『금고기관』이다. ‘삼언’에서 29편[유세명언(8편), 경세통언(10편) 성세항언(11편)], ‘이박’에서 11편[초각박안경기(8편) 이각박안경기(3편)] 등 총 40편을 발췌하여 엮은 것이다.

게 팔아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듯이, 심진사는 중국인 왕대춘의 도움으로 멕시코에서 탈출한 뒤 미국에서 공부를 하여 서기생에 피임되었던 것이다. 멕시코로 이민을 떠날 때 작가가 “옛적으로 말하면 상부사 역관이나 되어 가는 듯이, 지금으로 말하면 공영사 서기관이나 되어 가는 듯”(11)하다고 언급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복선이었던 셈이다.

서기생이 공교히 신병을 인하여 청원 귀국을 하는지라 공사가 즉시 심진사로 천보를 하였더니 천행으로 서기생 피임을 하여 공사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공사가 체임이 되어 돌아올 새 심서기도 그곳에 홀로 떨어져 있기도 싫고 자기의 목적하던 공부도 이미 졸업을 하였은즉 더 기다리고 있을 일이 없는지라(73)

물론 두 이야기의 주인공이 해외에서 크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전운한우교동정홍』에서는 문약허의 행운이 물질적인 부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 실현과정에서도 점술사의 예언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운명론적이라고 한다면, 『월하가인』에서는 심진사의 행운이 입신출세와 연관되어 있으며 저축이나 학업과 같은 개인적인 성실성의 결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정운조가 개발회사에 대한 허황된 풍설을 믿고 그것을 유포한 대가로 서사적인 징벌을 받은 것과 달리 심진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성실하게 학업을 닦고 근검한 생활을 영위한 덕분에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다.²⁰⁾

이렇듯 『월하가인』은 멕시코 이민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

20) 심진사는 “상업학교에 입학을 청원하여 낮이면 목사의 집에서 사환을 부지런히 하고 밤이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으로 하”(71)여 경륜을 쌓았기 때문에 출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왕대춘이 “수 년 동안에 여러 만금의 자본을 저축”(58)한 것이나 심진사가 벼슬을 한 뒤에도 “월급 중에 식가(食價)를 제한 외에는 꼭꼭 저축하기만 종사”(82)했다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윤리적 덕목으로서의 성실성이 제국주의의 질서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고 있긴 하지만, 서사적 뼈대로 삼고 있는 것은 「전운한우교동정홍」이라고 여겨진다.²¹⁾ 이해조가 여러 작품에서 『금고기관』의 서사를 활용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²²⁾ 초창기에 발표한 「고목화」나 「월양도」의 경우에 번안에 가깝게 전폭적으로 수용되었지만, 이후에는 점차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의 설정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변모한다.²³⁾ 「월하가인」은 그런 점에서 매일신보사 입사 이후 『금고기관』의 서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해조는 『금고기관』의 서사를 부분적으로 차용하면서 그 상상력의 빈틈을 역사적 사건들을 끌어들이며 보충하고 있다. 이 무렵에 쓴 여러 소설들에서 첫머리에 역사적 사건을 배치한다든가 혹은 “현금에 있는 사람의 실지사적”을 강조한 것도 이와 관련된다. 「화세계」에서 청일전쟁이라든가 군대 해산을 끌어들이고 「월하가인」에서 갑오농민전쟁과 멕시코 이민을 그려내며 「소학령」에서는 연해주 지역의 의병운동을 형상화한 것은 모두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월하가인」의 밑바탕에 중국인의 해외 무역과 성공을 그린 백화

-
- 21) 최원식은 왕대춘의 형상과 관련하여 한문단편 「북경 거지」와 「홍역관」의 화소에 기대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고(최원식, p. 277), 송민호는 「월하가인」의 첫대목에서 “선비가 화적단(동학군)에 끌려가 두목이 되어줄 것을 요구받”는 것을 예로 들어 「이견공궁도우협객(李沂公窮途遇俠客)」의 관련성을 언급한 바 있다.
- 22) 이경림(2013), 「근대 초기 『금고기관』의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근대문학 연구》 27, pp. 225-259.
- 23) 송민호에 따르면 이해조가 『금고기관』의 삽화를 수용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용 삽화의 전체 서사를 유지하여 소설에 차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수용 삽화의 전체 서사가 아닌 특정한 상황·사건의 설정을 차용하는 방식이다(송민호, 「이경림 발표 ‘근대 초기에 미친 금고기관의 영향에 대하여’에 관한 토론문」, 한국근대문학회 제 26회 학술대회, 2012.6.2., p. 48 참조). 강현조 역시 “이해조는 《제국신문》에 작품을 발표하던 시기뿐만 아니라 《매일신보》에 소설을 연재하던 191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명대백화문학과 만청소설의 번안적 수용, 그리고 「화성둔전」·「철세계」·「누구의 죄」의 번역 등 다양한 중국 문학 작품들에 대한 섭렵을 통해 작품 집필에 임했던 작가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강현조(2012), 「한국 근대초기 번역·번안소설의 중국·일본문학 수용 양상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6, pp. 7-37 참조.

소설이 놓여 있다면, 중국인 구원자의 등장을 예로 들어 이해조가 식민 권력의 검열 제도에 거리를 두려 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것처럼 느껴진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이민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던 과정에서도 중국인이 깊이 관련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05년에 상동청년회의 정순만이 멕시코 이민의 참혹상을 처음 고발했을 때, 그 근거가 되었던 것은 중국인 허웨이의 편지였던 것이다.²⁴⁾ 연동교회를 매개로 상동청년회와 관련을 맺고 있었던 이해조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²⁵⁾

사실 중국에 대한 이해조의 애정은 뿌리깊은 것이었다. 이인직이 일본에 대한 편애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이해조는 『빈상설』에서 중국을 파락호 남편이 새로운 인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묘사한 적도 있었다. 따라서 『월하가인』에서 중국인이 긍정적인 구원자로 형상화한 것은 서사의 원천이 중국 백화소설에 놓여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 역사적 사건에서 중국인이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작가가 자신이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시선을 간직해 왔다는 점들을 고려해

24) 상동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개화파 지식인들이 중국인 허웨이의 말을 신뢰했던 것과 달리 이민자들의 통역을 맡아 멕시코에도 다녀왔던 권병숙은 한인 이민자들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인 중국 광둥인들이 꾸민 계략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권병숙, 『하해의 간계』, 《황성신문》, 1905.11.15~17.). 이러한 권병숙의 주장은 황현의 『매천야록』에서도 발견된다.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멕시코에서 고용된 청국인들은, 부지런하고 영리한 우리 유민으로 인하여 소외되자 그들은 유언비어를 퍼뜨려 우리 유민들이 도착하는 것을 계속 저지했다”(『매천야록』, 光武 9년 乙巳(1905년) ①).

25) 권병숙은 을사오적이었던 권증현의 사촌으로 서울의 미국공사관에서 통역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1905년 한국인 이민자들을 이끌고 멕시코에 갔다가 1907년 귀국했는데, 멕시코 이민자를 추가로 모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황성신문》에서 “日本으로 向(향)야도 可(可)하고 美洲로 向(향)야도 可(可)하고 英國이나 德國으로 向(향)야도 可(可)하고 法國이나 俄國으로 向(향)야도 可(可)거니와 不可(不可)하다 墨西哥여”(『寧入鬼門關이언뎡 勿向墨西哥』, 《황성신문》, 1907.6.12, 2)라는 논설을 발표하기도 했다.

볼 때 총독부의 식민담론에 대한 저항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월하가인』에 등장하는 중국인 구원자의 모습은 식민권력이 아직 편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뿐 이해조가 적극적으로 식민권력에 대응함으로써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월하가인』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해조가 『소학령』에서 중국인을 동양인종이면서도 동시에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에 따라 계몽의 대상으로 재맥락화했다는 사실은 이것을 반증한다.

4. 맺는 말

이해조는 백화체로 된 한문소설 『잠상태(岑上笞)』 이래 많은 소설을 발표했다. 십 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삼십 여 편에 이르는 소설들을 발표했으니, 그 생산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이로운 생산력의 비밀을 파악하는 하나의 단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 있듯이 『금고기관』과 관련된다. 그런데 이해조의 초기작들이 전체 서사의 골격을 『금고기관』에서 그대로 가져왔다고 한다면, 1910년을 거치면서 역사적 사건들을 서사의 전면에 배치하여 『금고기관』의 영향력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당대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들을 다룸으로써 독자들의 호기심에 영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해조의 서사전략은 매일신보사의 대중화 기획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설적 제재로 삼은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식민 질서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제국의 질서 속으로 점차 편입되어 간다는 점에서 이해조의 소설세계는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끝내 『금고기관』의 상상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은 1910년대의 신소설을 이해할 때 좀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조선후기부터 널리 알

려졌던 중국 백화소설이라는 익숙한 이야기가 ‘신소설’이라는 외장 아래 여전히 많은 독자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은 독자들의 취향이 그리 많이 바뀌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당시의 독자들은, 그리고 신소설은 여전히 중국문학의 강력한 자장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소설이라는 문학사적인 혁명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이해조 소설, 더 나아가 신소설의 정확한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원천을 탐구하는 작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중국 백화소설을 ‘한국문학’의 외부에 놓을 것인지 혹은 내부에 놓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소설의 서사적 원천을 일본문학뿐만 아니라 중국문학에서 찾으려는 시도 또한 요구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진구(2014), 「한국소설에 나타난 墨西哥 이미지 연구」, 《어문론집》 60.
- 강현조(2012), 「한국 근대초기 번역·번안소설의 중국·일본문학 수용 양상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6호.
- 구장률(2012), 「식민지 문화 전략과 복고의 식민성 - 이해조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49.
- 김귀옥(1995), 「1905년 멕시코이민 한인노동자 연구 - 하와이 이민과 비교하면서」, 《재외한인연구》 5.
- 김석봉(2005), 『신소설의 대중성 연구』, 역락.
- 김형규(2011), 「일제 식민화 초기 서사에 나타난 해외이주 형상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46.
- 배정상(2015), 『이해조 문학 연구』, 소명출판.
- 송민호(2012), 『동농 이해조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이경림(2013), 「근대 초기 『금고기관』의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7.
- 이영아(2007), 「1910년대 매일신보 연재소설의 대중성 획득과정 연구」, 《현대문학연구》 23.
- 장노현(2012), 「근대전환기 중국 매개 번역문학의 현황과 양상」, 《국제어문》 56.
- 최성윤(2014), 「이해조 신소설을 저본으로 한 모방·번안 텍스트의 양상 연구」, 《현대소설연구》 57.
- 최원식(1986), 「신소설과 노동이민」,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 표언복(1998), 「미국 유이민의 발생과 신소설」, 《어문연구》 30.
- 에두아르노 갈레아노(1980), 박광순 역, 『수탈된 대지: 라틴 아메리카 500년사』, 범우사.

원고 접수일: 2017년 1월 9일

심사 완료일: 2017년 1월 31일

게재 확정일: 2017년 2월 2일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vels of
Yi Hae-jo and *Jinguqiguan*
— Focusing on “Wolhagain”

Kim, Jonguck*

Published in *Maeilshinbo*, Yi Hae-jo’s “Wolhagain” is a Sinsoseol that was well received by its readers. This work is seen to have been the first of its kind to deal with the Mexican immigration of Koreans in 1905. The reason why Yi Hae-jo chose the issue of Mexican immigration was to use social interest to draw public attention. At the time that this series was being published, *Maeilshinbo* often published articles on the Mexican civil war, which was regarded as the first revolution of the 20th century. Since Yi Hae-jo did not intend to reproduce the historical events of the present day, it is easy to find points in “Wolhagain” where the process of immigration and return by the protagonist does not correspond to historical facts. In addition, it denies the legitimacy of the Peasants’ War of 1894 and distorts the political reality of the Korean Empire, which was faced with the crisis of colonization.

What is interesting about “Wolhagain” is that it borrows the narrativ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he Chinese *Jinguiguan* in order to bring about the readers' response. In the case of Yi Hae-jo's early works, the whole narrative skeleton was borrowed directly from *Jinguiguan*. From around 1910, however, historical events came to be placed at the fore of the narrative, and focus was put on concealing the influence of the *Jinguiguan*. On the surface, the intention was to cater to the curiosity of the readers by dealing with the events that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time. This narrative strategy of narratives is not only deeply connected with the popularization project of *Maeilshinbo* but also shows the attitude of justifying the colonial order in the process of interpreting historical events.

